

대행 스님

이 눈을 뜨고도 잘 줄 알아야 합니다

… 그리고 맛있는 줄 몰라요. 식빵도 큰 거 하나 사다 놓으면 그게 맛이 없지만 조그만 거 하나 사다 놓고 하나씩 별러 먹으면 참 맛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문을 듣는데도 항상 그냥 '아, 가면 듣는다.' 이걸로 끝나선 안 돼요.

우리는 음미해 볼 거 다 음미해 보고 체험할 거 다 체험하면서 안으로 굴리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놓았을 때, 과거심과 미래심과 현재심으로 모든 것이 귀합될 때 귀합된 한마음의 그 한 점이, '일심이 공해서 그것조차도 세울 게 없다.' 이 정도로 돼야 거기에서 참 생숫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아져야만이 자기를 이끌고 다니는 스승이 자기한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다루면서 또 바깥의 스승은 이렇게 설법을 해 주면 그걸 안으로 받아들여서 안으로 굴려서 또 둘이 아닌 것을 배우면서 자꾸 나투면서, 이렇게 체험하면서 또 자기한테 놓으면서 또 돌아가거든요.

처음에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했지만 나중에 나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 또 상대방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게끔 나투면서 또 돌아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부가 참, 우리가 날마다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들었으면 듣는 대로 날마다 생활하면서…. 또 여길 오더라도, 내가 안 봐도요,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디가, 허리가 구부러졌는지, 허리를 펴고 앉았는지, 다리가 저린지, 다리를 오그리고 앉았는지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알고 있는 대신에 나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앉아 있기만 하면 뭐, 수인 줄 아는데 그 마음 가짐가짐이 말이에요, 중구난방이에요. 요새 가만히 지켜보면 사람마다 중구난방이야. 이게 색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님이 설법을 안 했다, 스님이 없다, 이렇게 우리끼리만 앉았다' 하는 게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벌써 자기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자부처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 자부처라는 그 자체 한 점에 바로 스님네들의 마음과 역대 조사들의 마음과 모든 일체 사대성인들의 마음이 거기 포함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접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 봐야 지리를 알죠? 지리를 안다 하더라도 이 오선 줄이 한데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삼각원형을 이룰 수 있어야만이, 그것은 또 우리가 오광주를 얻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오광주를 한데 합쳐서 여의주라고도 해요. 그런다면 그거를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접근해서 우리가 나갈 때, 요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도 요 물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의 질(質)이 어떤지, 물이라는 것도 알고 컵이라는 것도 알고, 이게 독약이 섞였는지 맑은 물인지 이것도 알아야 하고, 이 물의 생리도 알아야 하고 생명, 말, 뜻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요. 어디서 온 것도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눈 간 데 귀가 가고 귀 간 데 몸도 가고 코도 가고 혀도 가고 다 통신이 가서 이것 하나를 들 수 있는 거거든.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럼 한 가지만, 보기만 해도 이건 도가 아니다 이거야,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벌써 직감적으로 '아, 여기 이 산의, 이 땅의 혈맥이….' 이러면 벌써 거기 땅속 깊이까지도 전부 나와 있어, 동시에. 그러면 그걸 알기만 해서가 아니거든. 그 땅이, 즉 생명이 있어서 같이 말할 수 있고 서로 통신이 될 수 있어야만 돼요. 그 땅 질의 역량이 얼마나 있나, 그것도 알 수 있어야 하고. 그건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오면서 '네가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 아는 거나 똑같아. 이 땅질이나 돌 질이나 이런 문제들도 깔축없어. 그렇기 때문에 땅을 보는 순간순간이 한 찰나에, 한 찰나에 보는 순간에 오신통이 다 동시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만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보는 데도 쫓아서 같이 들어가고 듣는 데도 쫓아서 같이 들어가고. 사람과도 그렇지마는 생물도 그렇고, 어떠한 미생물도 그렇고, 어떠한 무정물도 그렇고 우주의 어떠한 생명질 항성, 행성, 또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인공위성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알고 기계의 모든 것을…, 이 인간이 복잡하게 기계화되어 있는 것처럼 됐듯이 기계도 아주 세밀하거든. 이 인체의 모든 세포가 아주 그냥 뭐, 이 두뇌만 하더라도 말도 못 하지 않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기계를 하나 만들어도. 그럼 그게 줄 하나만 잘못되고 혼선이 돼도 그건 통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묘해요. 인간이 얼마나 묘하기에, 묘하고 광대무변한 만법의 근원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로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사람이.

그런데 지금 저 위성이나 항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인간의 두뇌가 그만큼 본래 그렇게 만법의 근원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로만이라도 책정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 거는 물질 그 자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 초에 의해서, 한 시간을 초로 잡을 수도 있고 초를 한 시간으로 잡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공이 없는, 속도가 빠른 그러한, 즉 말하자면 속도가 빠르다 못해 아예 그냥 이렇게 놓여 있듯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문제들도 인간이 다 가지고 있다 이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쓰고 있는 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비유를 하건대 우리가 살림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자지 못하는 시간도 있어요, 잠이 안 와서.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오늘은 잠이 안 오니까 잠을 못 자는구나. 아유, 두 시간밖에 못 잤어. 세 시간밖에 못 잤어.' 요렇게 생각들을 하거든. 그러면 그거밖에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시간을 못 잤다고 하더라도 일 초로 정해 놓으면 한 시간이면 일 초가 얼마나 많아요? 네? 얼마나 오래 잤어요? 이해 안 가요? 한 시간을 일 초로 잡았다면 일 분만 자도 몇 시간입니까? 60시간이죠? 허허허, 보세요.

그러니까 늦게 가는 거, 속도가 빨리 가는 것, 비행기를 타면 속도가 빨리 가는데 여기는 마차를 타고 간다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같아요, 위에서 볼 때. 허허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인간 이 자체가 1시간, 24시간 뭐, 이러고 가만히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이건 늙는 거예요. 빨리 늙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늙지 않죠? 왜 마음은 늙지 않을까요? 외려 철이 들고 늙지 않을까요? 마음은 빨리 돌아가고 육신은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허허허….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설법을 듣는 대로 그냥 무단히 넘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젊음을 소중하게 갖는 것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어느 정도는요. 다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건강하고 젊음을 갖출 수 있다 이러는 거는 한 시간을 일 초로 잡아서 자도 그것은 해롭지 않다. 또 잡아서 자는 게 아니라 아예 시간 탓도 하지 말고, 자게 되면 자고 안 자게 되면 안 자고 그래도 벌써 그 도리를 알고 그렇게 하면요, 그냥 한 시간을 자도 한 댓 시간 잔 거는 되거든요. 굳이 뭘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눈이 시글시글할 때가 있어요. 아주 정신은 말짱하고 잠을 안 잤어도 괜찮은데, 건강도 좋고 다 좋은데 눈이 시글시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다면 이것은, 즉 말하자면 눈이 게을러서 같이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고도 잘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눈을 뜨고도 잘 줄 알아야 된다.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자야 하고 눈을 뜨고도 잘 줄 알아야 한다. 이거 어렵게 들으시면 어렵지마는 우리가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꾸 체험을 해 보고 해 보고 하면 능숙하게 되죠. 왜, 보리밥 못 먹는다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먹어 보면 보리밥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듯이 말이에요.

서산 대사가 사명 대사더러 솔 이파리 찐 물에다가 날콩을 찧어 가지고 그 물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설사를 하고 하나는 된똥을 누거든요. "왜 나는 된똥을 누는데 너는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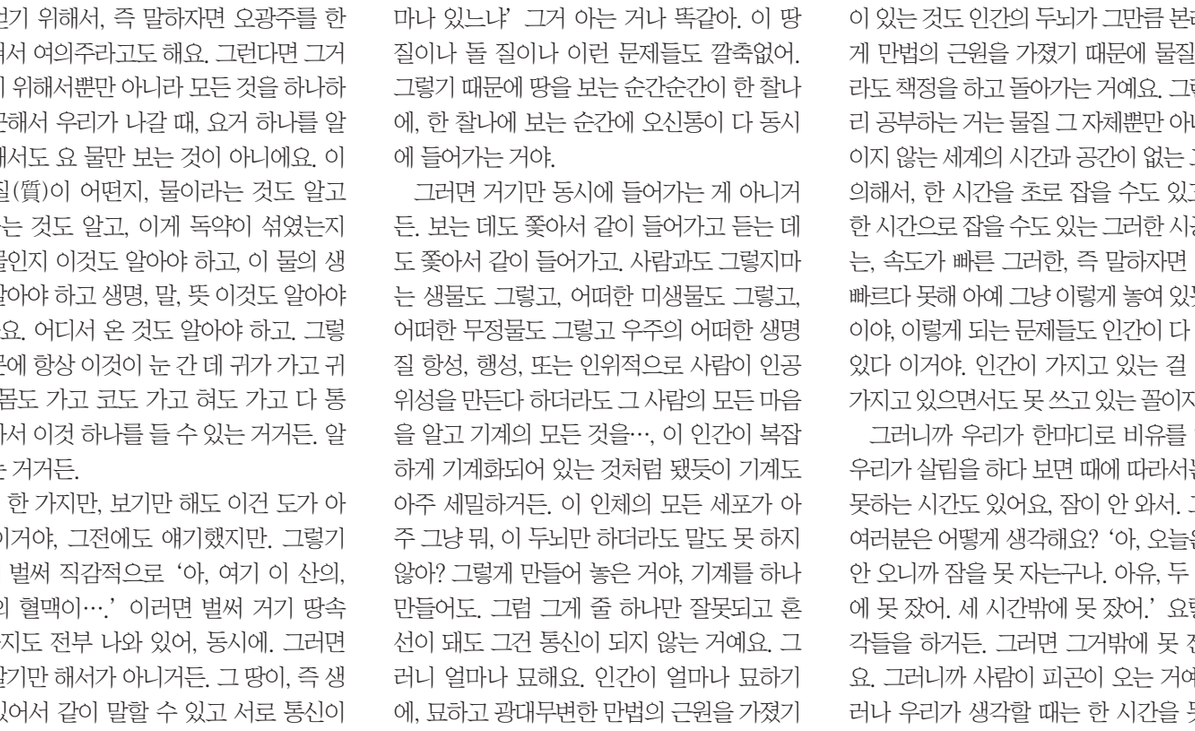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